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 사라지고 있는 아웃바운드, 회복이 기대되는 인바운드

9월 내국인 출국자 수 18.3% 증가, 외래객 입국자 수 29.2% 감소

2017/10/24

■ 아웃바운드는 꾸준히 성장 중

9월 내국인 출국자 수(승무원 제외)는 2,099,59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했다. (17년 9월 누계기준 18,398,764명, +18.5% / 3Q17 6,572,261명, +16.1%) 2017년에는 이례적으로 장기 연휴가 2번이나 존재한 해이다. 5월과 10월 황금연휴는 출국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5월의 출국자 수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했는데, 2017년 전년 동월 대비 승무원을 제외한 출국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월별로 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 규슈지역 지진, 브렉시트와 유럽지역의 빈번한 테러 등 아웃바운드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기저효과가 있는 시점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도 아웃바운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장기 연휴가 부재(휴일 수는 2017년과 동일)한 2018년에도 출국자 수의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하며, 여행업체들의 4분기 추석 효과 반영에 따른 성과 호조에 이어 내년에도 본업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바운드: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다

9월 주요 방한 국가들의 외래객 입국자 수 증감률은 중국(-56.1%), 일본(+5.4%), 대만(+0.7%), 홍콩(+6.7%), 태국(+11.9%), 필리핀(-37%)으로 집계됐다. 한반도 불안정세로 방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국인 입국자 수가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3월을 시작으로 4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60%대의 감소세를 보이던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8월부터 감소폭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9월에는 -56.1%를 기록하며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는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한-중간 통화스왑 연장, 19차 당대회,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2012년 센카쿠 사태 발생 당시 일본 관광 제한 조치와 일본 브랜드 자동차

Analyst 조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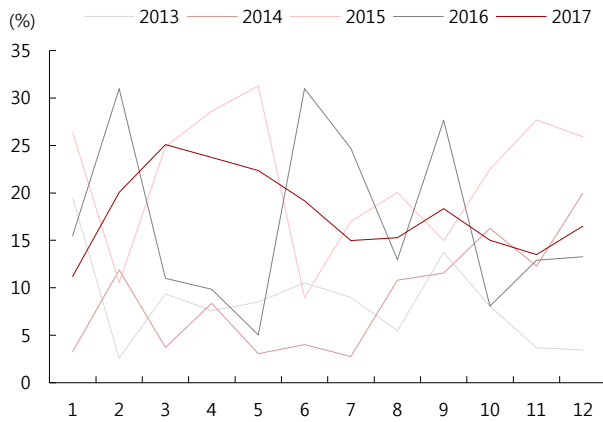
(2122-9209)

kjcho@hi-ib.com

불매운동 등이 있었을 당시에도 18차 당 대회 이후 점차 관계가 개선되며 관광객 수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4>. 이번 당대회 이후에도 여행 금지 제재 완화와 한국 여행심리 개선으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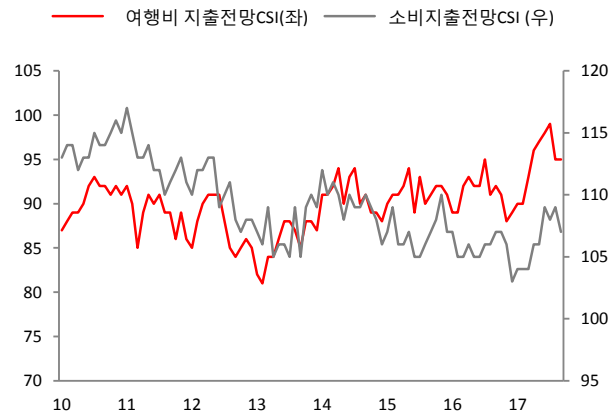
또한 2018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체 외래객 입국자 수도 국가별로 회복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을 당시 외래객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그림6>.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아웃바운드의 구조적 성장과 동시에 인바운드 또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월별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는 2017 년에 들어서며 월별로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17 년 10 월 이후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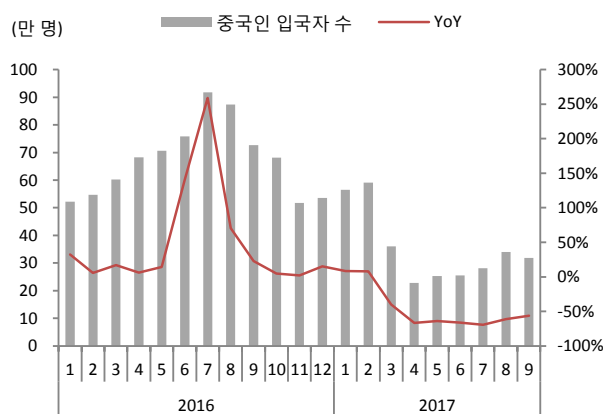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소비지출전망 대비 여행지출전망 우상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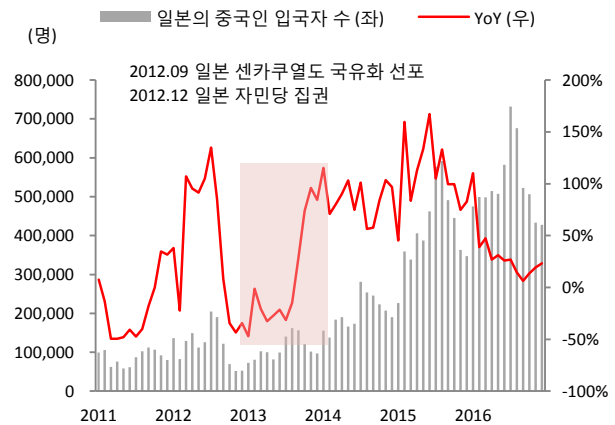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월별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은 8 월을 기점으로 회복세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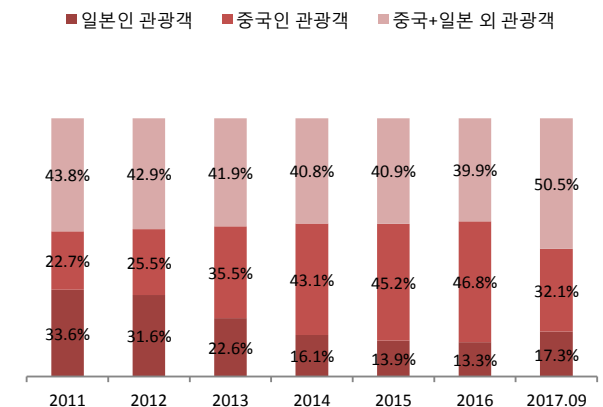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중국의 18 차 당대회 (2012 년 11 월 8 일-14 일) 이후 점차 일본의 중국인 입국자 수가 회복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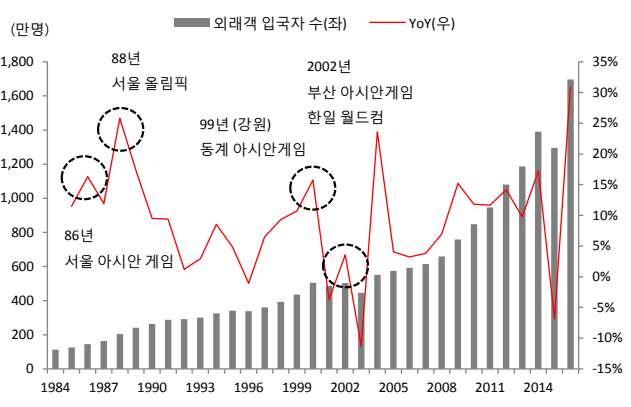
자료: 일본관광청,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외래객 방문객 중 중국 및 일본 비중 추이: 3 월 금한령 이후 중국인 관광객 비중 큰 폭으로 하락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6>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던 해에는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3%	11.7%	-